

BRIEF

Vol. 14 | 2022. 10.



작성: 이인숙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층 T.055-713-7074 F.055-713-7093 www.gnwf.or.kr

경남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실태와 지원 방안¹⁾

01.

조사개요

02.

경남 한부모가족 현황

03.

경남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실태

04.

경남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 방안

- 최근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성인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되어도 잠재적인 위기가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함하며,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이 모자가족이었으나, 최근 부자가족 비중이 약 25%에 이르고 있어 모자가족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음. 한부모가족 형성 요인 또한 2000년 전까지는 주로 사별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2000년 이후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 발생이 더 많아지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 자녀양육, 가사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정지원 대상이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15%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상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한부모가족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은 다른 취약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 형성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자립의지가 높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독립적 부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효과가 높은 강점과 역량이 큰 집단임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위기 한부모가족이 되어 자녀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한부모가족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단계임

01 조사개요

■ 한부모가족 생활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2년 06월 03일 ~ 2022년 06월 21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웹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경상남도 시군 거주 한부모가족 824명 (가족유형/ 시군/ 정부지원 여부에 따른 층화표집 실시)

구분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시지역	군지역
계	824	236	243	686	138
저소득 지원가구	588	451	137	505	83
비지원가구	236	130	106	181	55

■ 조사 항목

한부모가족 구성 및 특성, 자녀양육 및 돌봄, 경제활동 현황, 주거환경, 건강상태, 사회지지망 및 차별경험,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정부 정책 및 경상남도 정책에 대한 수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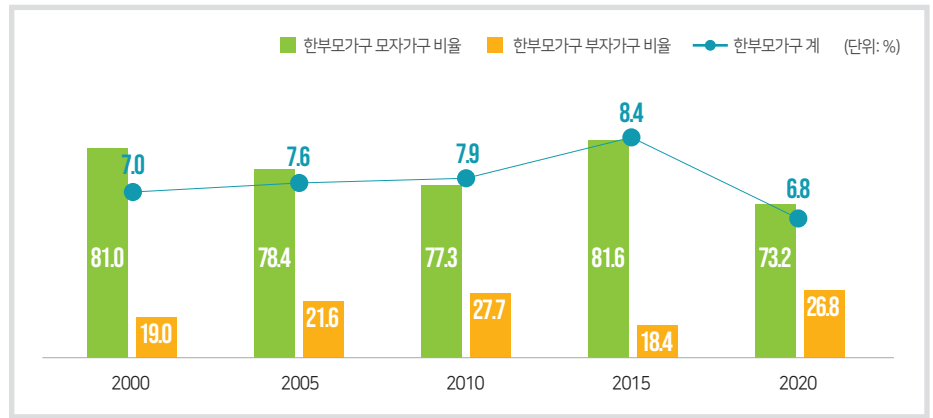
¹⁾ 본 내용은 2022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연구에서 자녀양육 및 돌봄 영역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관련 내용은 본 재단의 보고서 원본을 참고하기 바람

02 경남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가구 유형별 현황

- 2020년 경상남도 전체 가구는 1,376,240가구로 이들 중 93,370가구가 한부모가구로 6.8%를 차지하며, 그중 모자가가가 73.2%, 부자가가가 26.8%를 나타냄
- 2000년 모자가가는 81.0%에서 2020년 73.2%로 7.8%p 감소하였고, 대신 부자가가는 19.0%에서 26.8%로 증가하여 부에 의한 자녀양육이 증가하는 추세임
- 경남의 한부모가구 비중은 6.8%로 전국 평균이 7.3%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한부모가구가 증가하다가 최근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전국 추세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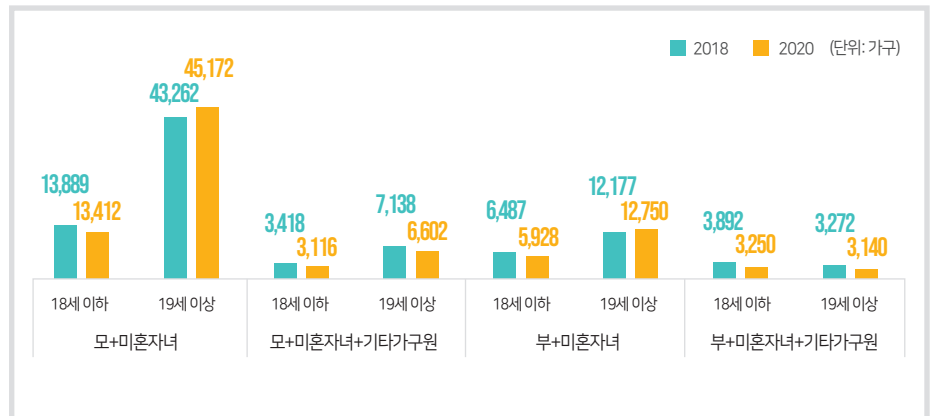
그림 1 한부모가족 연도별 현황



한부모가구 세대유형별 현황

- 세대 유형별로는 [모·부 +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 비율은 증가한 반면, [모·부 + 미혼자녀 + 기타가족]으로 구성된 한부모가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 또는 기타가족 등과 동거하는 한부모가구 비율이 감소하여 모 또는 부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증가함을 의미함
- 한부모가구의 자녀 연령에 따른 세대 현황을 비교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모·부 +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는 감소한 반면, [모·부 + 19세 이상 자녀]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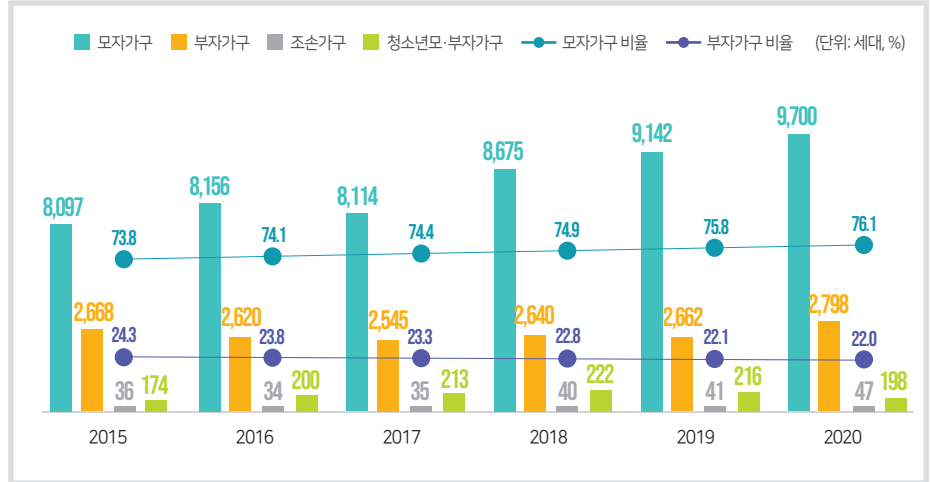
그림 2 한부모가구 세대 유형별 규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경상남도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는 2015년 10,975가구이고, 2018년 11,577가구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2,473가구로 지난 5년간 13.6%p 증가하였음
- 한부모가족 유형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중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급여 대상이 2015년 8,097가구에서 2020년 9,700가구로 19.8%p 높아져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그림 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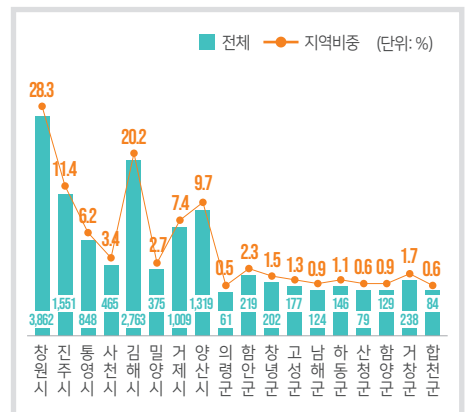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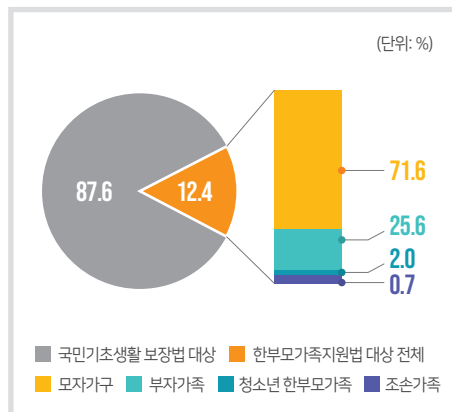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및 시군 현황

- 2021년 경상남도의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5,275가구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는 1,925가구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상자는 11,726가구, 중복가구를 제외하면 13,651가구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은 75.9%, 부자가족은 22.4%를 차지하며, 그 밖에 청소년모자가족이 1.1%, 청소년부자가족이 0.1%, 조손가족이 0.5%이며, 저소득 모자가족의 비중이 일반 모자가족 보다 더 높음
- 경상남도의 시군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시지역이 89.3%, 군지역은 10.7%이고, 시지역 중에서는 창원시가 28.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김해시 20.2%, 진주시 11.4%, 양산시 9.7%, 거제시 7.4%의 순이고, 군지역 중에서는 함안군이 2.3%, 거창군 1.7%, 창녕군 1.5% 순으로 많음

그림 4 지원 근거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그림 5 시군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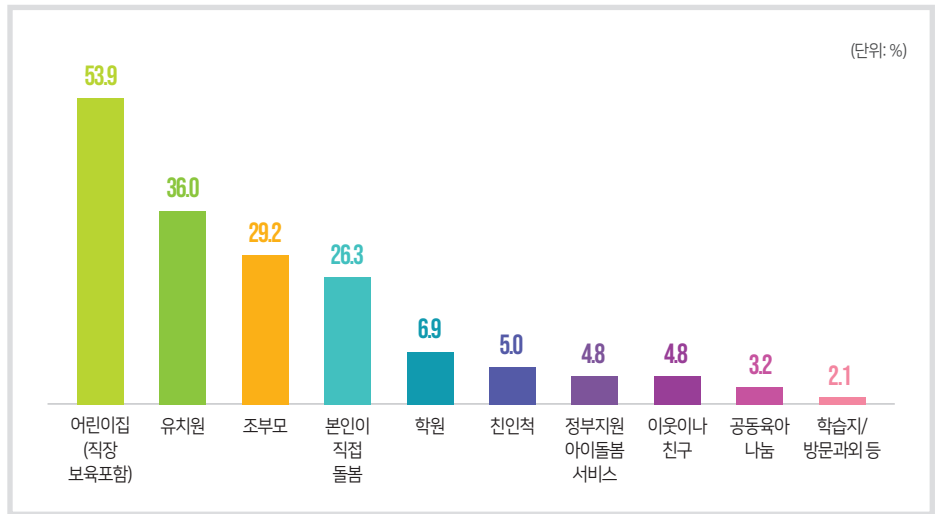


03 경남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실태

미취학자녀 돌봄 유형

- 미취학 자녀 돌봄 순위는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 본인이 직접 돌봄, 학원 등의 순임
- 미취학 자녀 돌봄 시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의 순인 반면, 군지역은 어린이집, 조부모, 유치원의 순임. 가족유형별로는 모자가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의 순인 반면, 부자가구는 어린이집, 조부모, 유치원의 순임. 정부지원 여부별로는 저소득지원가구는 어린이집, 본인이 직접돌봄의 순이고, 비지원가구는 어린이집, 조부모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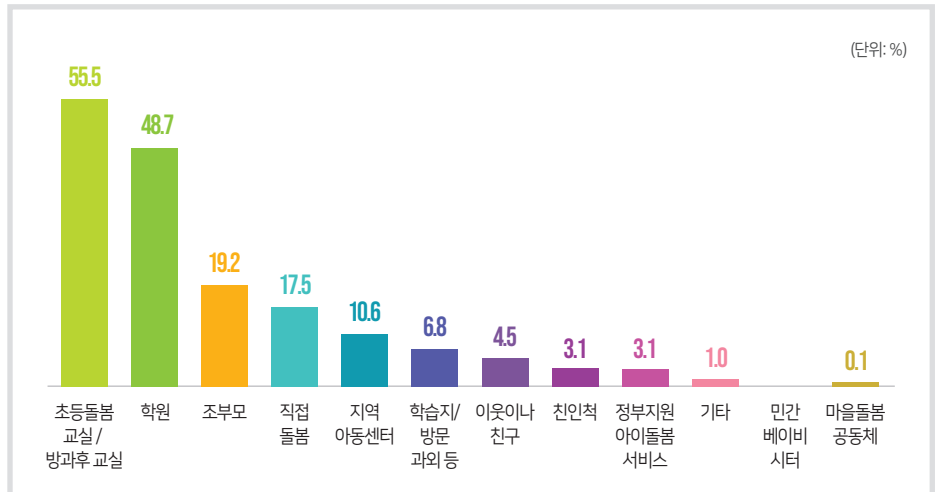
그림 6 미취학 연령 자녀 돌봄 유형



초등자녀 돌봄 유형

- 초등학생 자녀 돌봄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학원, 조부모, 본인이 직접돌봄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시지역보다 높고, 반면 시지역은 학원 이용이 군지역보다 높아 차이를 보임

그림 7 초등학생 연령 자녀 돌봄 유형



돌봄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 유무

- 한부모가족 자녀 중 성인의 돌봄 없이 60.1%가 자녀 혼자 또는 자녀들끼리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시지역의 한부모가족 자녀 59.1%, 군지역은 68.1%로 군지역이 더 취약함
- 가장 어린자녀를 기준으로는 미취학 자녀가 33.0%, 초등학교 자녀 62.3%, 중학생 자녀 76.8%가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에 비해 기타 가족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홀로 지내는 자녀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돌봄없이 혼자 또는 자녀들끼리 지내는 시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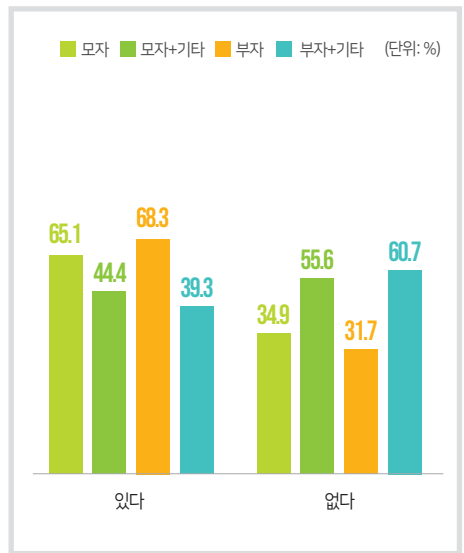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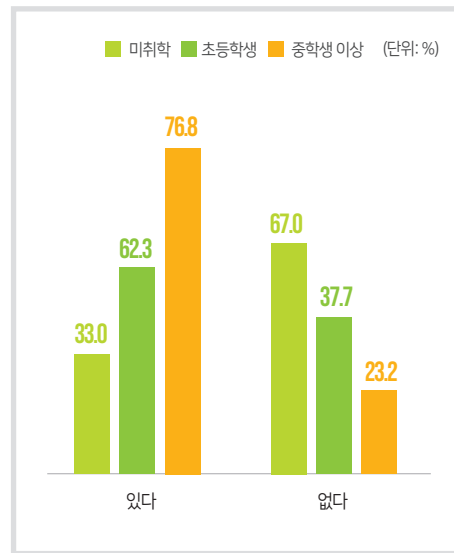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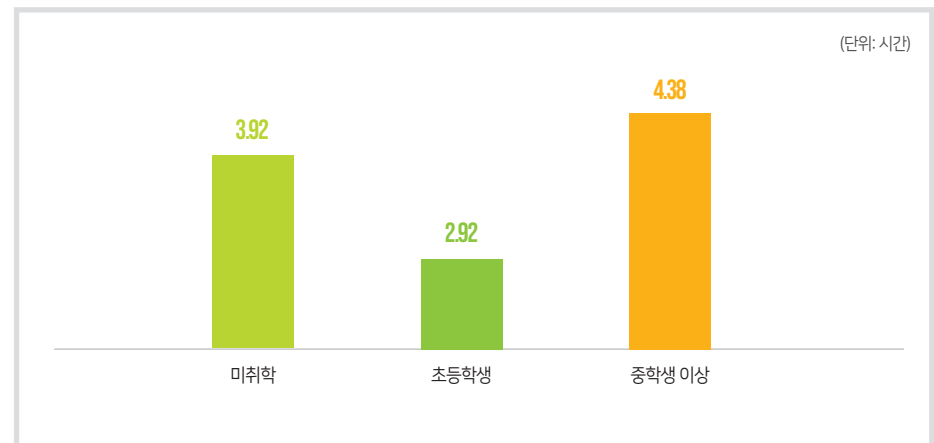


그림 9 가족유형별 돌봄없이 혼자 또는 자녀들끼리 지내는 시간 유무

돌봄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

- 성인의 돌봄 없이 자녀 혼자 또는 자녀들끼리 지내는 시간은 평균 3.7시간이며, 홀로 지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 3.9시간, 초등학교 2.9시간, 중학생 이상 4.4시간으로 차이를 보임
- 저소득 지원가구와 비지원가구 자녀가 혼자 지내는 비율은 거의 차이는 없고, 시간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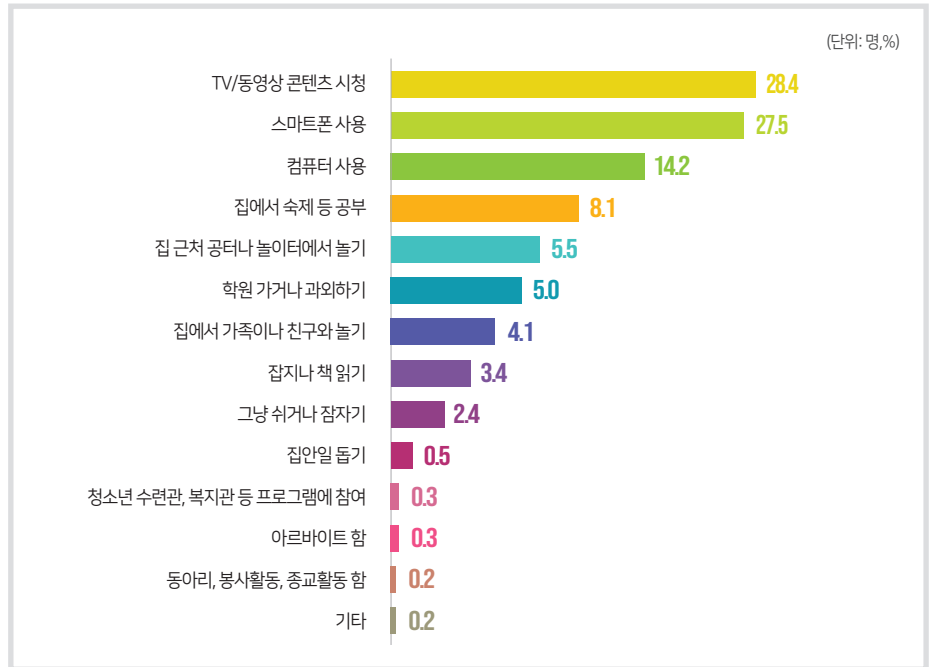
그림 10 하루 평균 돌봄없이 혼자 또는 자녀들끼리 지내는 시간



돌봄부재 시간 동안 자녀의 일상

- 돌봄 부재 시간 동안 자녀가 주로 하는 일은 TV/동영상 콘텐츠 시청,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사용, 집에서 숙제 등 공부 등의 순임.
- 시지역은 TV/동영상 콘텐츠 시청, 스마트폰 사용의 순이었고, 군지역은 스마트폰 사용, TV/동영상 콘텐츠 시청의 순으로 군지역 스마트폰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남
- 자녀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TV/동영상 콘텐츠 시청, 스마트폰 순이고, 중학생 이상 자녀는 스마트폰, TV/동영상 콘텐츠 시청의 순임. 저소득 지원가구와 비지원가구 자녀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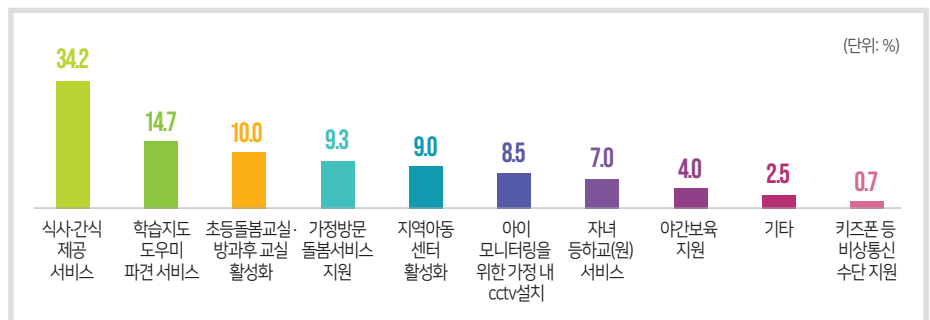
그림 11 돌봄부재시 혼자 또는 자녀들끼리 하는 일



돌봄부재 시 필요 서비스

-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로 식사·간식 지원이 3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활성화, 가정방문 돌봄 등의 순임
- 모자가족은 식사·간식 지원, 학습도우미 지원이 높았고, 부자가족은 식사·간식 지원, 자녀 등학교 지원에 대한 지원을 희망함
- 저소득 지원가구는 식사·간식 지원, 학습도우미 파견, 자녀 모니터링 위한 가정내 CCTV 설치 지원의 순이었고, 비지원가구는 식사·간식 지원, 초등돌봄/방과후교실 활성화, 가정방문 돌봄의 순임

그림 12 돌봄부재시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



■ 자녀양육의 어려움

- 자녀양육의 어려움 순위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부모 역할의 어려움, 육체적·정신적 피로, 자녀 돌봄 사람 부재 등의 순임
- 저소득 지원가구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86.2%로 비지원가구 51.5%에 비해 매우 높고, 다음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한 반면, 비지원가구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함께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13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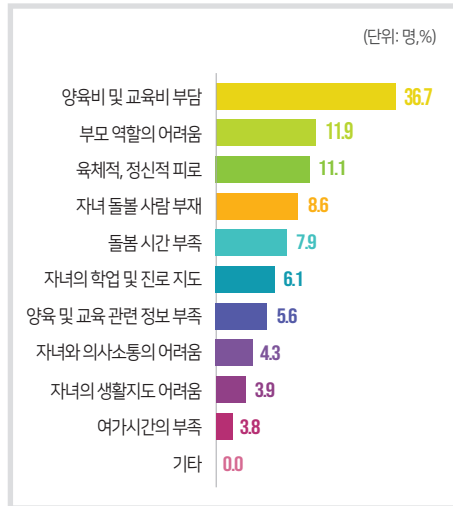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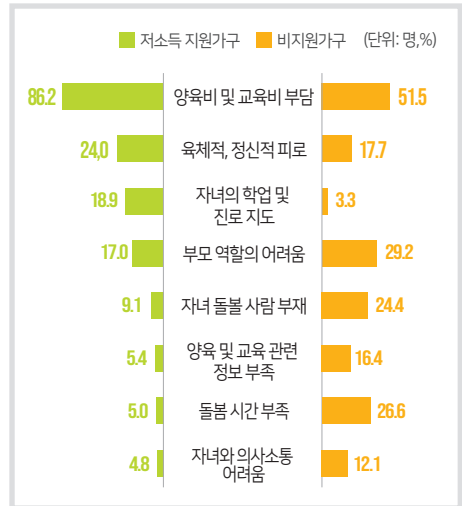


그림14 자녀양육의 어려움비교 (다중응답)



* 8순위까지임.

■ 자녀양육 및 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

- 자녀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순위는 자녀양육비 지원확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식사 지원, 야간 및 긴급돌봄 지원, 학습도우미 파견 등의 순임
- 저소득 지원가구는 자녀양육비 지원확대 비중이 90.8%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우선 희망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식사 지원과 학습도우미 파견이며, 비지원가구는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가 55.5%이고, 다음으로 야간 및 긴급돌봄 지원과 학습도우미 파견을 희망함

그림15 자녀양육 및 돌봄 희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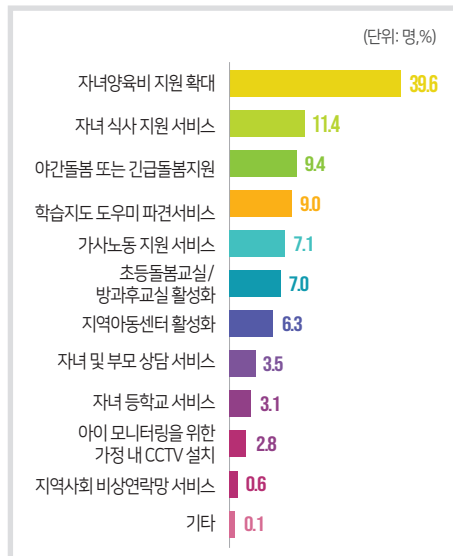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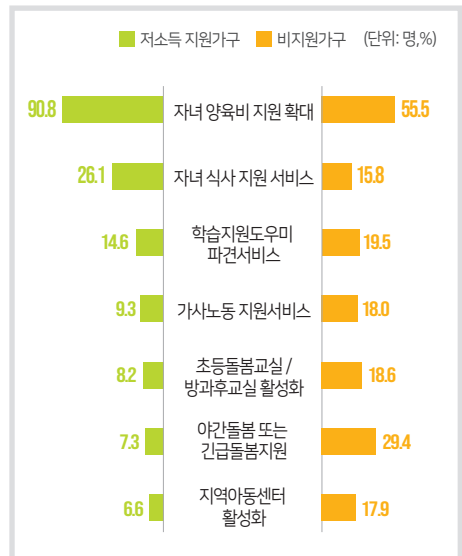


그림16 자녀양육 및 돌봄 희망 서비스비교 (다중응답)



* 7순위까지임.

04 경남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 방안

정책추진 방향

- 한부모가족유형 내 다양성 및 자녀 성장주기 고려한 정책 대응
- 한부모가족 소득 지원기준의 법적 한계 보완 필요
- 생활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지원

세부 추진과제

긴급돌봄 체계 구축

- 권역별 긴급돌봄체계 지정 및 연장돌봄 운영
마을 단위의 돌봄기관 중 긴급돌봄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종사자의 돌봄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차출근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인력을 확충하여 긴급돌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아동돌봄기관의 비지원 한부모가구 우선순위 상향지정
비지원 한부모가구도 자녀 돌봄을 함께 책임질 가족구성원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구와 다를 바가 없는 열악한 돌봄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부모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지원의 기회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학습도우미 파견
저소득 지원가구 및 조손가구에 월 4회 이상 학습도우미 파견을 (손)자녀의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간식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소비하는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료품비(31.6%)이고, 지자체 중에 자녀 간식비(거제시 지원)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전체 시군에서 모두 확대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매칭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녀 심리상담 및 게임과몰입치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학교부적응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홀로 있는 시간 동안 게임과몰입 등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지원 또는 아동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할 필요 있음
- 부모양육기술 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유형에 따라 자녀양육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및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의 확대나 비용지원, 필요 시 서비스 이용이 즉각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칙에 대한 법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지원이 필요함